

# 濟州地域經濟의 産業構造의 特徵과 發展方向\*

左 承 喜\*\*

## 目 次

- I. 머리말
- II. 濟州地域 經濟成長 및 産業構造의 特徵
- III. 濟州地域經濟의 向後 發展方向

## I. 머리말

- 本稿의 목적은 濟州地域 産業구조의 特性을 분석함으로써 濟州지역경제의 거시적 실상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濟州 지역경제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해 보고자 하는데 있음.
- 濟州地域 産業構造分析은 최근 韓國銀行 濟州支店에서 발표한 "濟州經濟의 産業構造 分析" (1992. 12)에서 주로 인용하였음.

## II. 濟州地域의 經濟成長 및 産業構造의 特徵

### 1. 濟州地域經濟의 成長推移

#### 가. GRP 및 1인당 GRP成長推移

- GRP (경상가계기준)의 성장분석을 통해 濟州지역경제의 발전추이를 보면 61~90년간 총 GRP

\* 本資料는 著者個人의 의견이며 韓國開發研究院의 공식의견과는 무관함.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은행 濟州지점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함.

\*\* 韓國開發研究院

2 社會發展研究 9輯

는 물론 1인당 GRP도 전국에 비해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해 왔음(〈表 1〉 참조).

— 90년중 제주지역 GRP는 61년에 비해 669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61~90년중 연평균 성장율이 전국 GNP성장율(經常價格 기준)보다 다소 높은 24.2%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GNP에서 제주지역 GRP가 차지하는 점유비도 61년의 0.9%에서 90년에는 1.0%로 높아졌음.

— 또한 1인당 GRP도 30년간 (60~90) 연평균 21.8%의 성장율을 보였으며 이를 전국의 1인당 GNP와 비교해 보면 전국대비 비율이 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전국평균의 83.3% 수준에 머물고 있음.

〈表 1〉 GRP(GNP) 및 1인당 GRP(GNP) 推移<sup>1)</sup>

	총 생산(억원)			GNP <sup>2)</sup>	일인당 총생산(천원)		
	제주(A)	전국(B)	A/B	디플레이터	제주(A)	전국(B)	A/B
1961	25.7	2,942	0.0087	-	9	11.4	0.7895
1971	308.7	34,167	0.0090	12.6	83	104	0.7981
1981	4,625.2	455,281	0.0102	82.2	988	1,189	0.8366
1990	17,184.8	1,714,881	0.0100	131.3	3,337	4,007	0.8328
1990/1961(배) <sup>3)</sup>	668.67	582.90		10.42	370.78	351.49	
평균증가율(%)							
(1961~1971)	25.35	24.97		-	22.38	22.26	
(1971~1981)	27.90	26.55		18.58	25.25	24.72	
(1981~1990)	14.04	14.19		4.81	12.95	12.98	
(1961~1990) <sup>3)</sup>	24.21	23.65		12.43	21.80	21.58	

註 <sup>1)</sup> 경상가격 기준(단 GNP의 경우 61, 66년은 구계열).

<sup>2)</sup> GNP디플레이터는 1985=100.

<sup>3)</sup> GNP디플레이터는 1990/1971 및 1971-1990 기간중 증가율.

資料 : 국민계정(韓銀) 각연도 및 제주경제지표(제주도청, 1991).

— 한편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1985~1991년 사이의 각 市道別GRP增加率추이를 보면 제주가 183.6%로 경기의 228.4%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음(<表 2>참조).

<表 2> 1985~1991년간의 市道別 GRP 增加率 推移

	도 내 총 생산(10억원, %)		
	1985	1991	증가율
서울	19,424.2	51,102.4	163.1
부산	6,317.1	15,762.0	149.5
대구	3,156.6	8,490.4	169.0
인천	3,679.4	10,089.9	174.2
광주	-	(4,859.5)	-
대전	-	(5,024.0)	-
경기	10,261.4	33,698.7	228.4
강원	2,959.4	6,162.1	108.2
충북	2,478.2	6,525.5	163.3
충남 <sup>1)</sup>	4,845.5	12,483.1	157.6
		(7,459.1)	
전북	3,172.8	7,712.7	143.1
전남 <sup>1)</sup>	5,777.6	15,679.3	171.4
		(10,819.8)	
경북	6,057.2	14,594.1	140.9
경남	9,369.3	23,008.7	145.6
제주	736.2	2,088.2	183.6
計	78,234.9	207,397.1	165.1
(전국) <sup>2)</sup>	(81,735.9)	(214,580.4)	(162.5)

주: <sup>1)</sup>91년 충남, 전남의 수치는 대전직할시와 광주직할시가 포함된 수치이며 충남과 전남하단의 ()는 대전직할시와 광주직할시가 제외된 수치임.

<sup>2)</sup>전국수치는 국방부문 및 수입세가 포함된 수치임.

나. 産業別 附加價値의 成長推移

— 한편 부가가치(經常價格 기준)의 성장을 産業別로 보면 61~90년간 농림어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는 전국보다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광공업은 전국상승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表 3〉참조).

- 농림어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1~90년간의 30년 연평균성장율이 전국보다 각각 4.8%「포인트」, 2.0%「포인트」가 높은 22.3%, 26.8%를 기록함으로써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은 농림어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부가가치의 전국대비 비중도 농림어업은 61년의 1.3%에서 90년에는 3.9%로,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0.7%에서 1.0%로 증가하였음.
- 반면 광공업의 경우에는 90년기준으로 61년대비 18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19.0%에 그침으로써 제주지역의 타산업 성장율 및 전국 성장율을 훨씬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비중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表 3〉 産業別 附加價値(推定)의 推移

(단위 : 억원)

	농 립 어 업			광 공 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1961	14.3	1,139	0.0126	2.8	453	0.0062	8.6	1,323	0.0065
1971	152.2	9,309	0.0163	24.7	7,111	0.0032	131.8	16,577	0.0080
1981	1,614.2	74,306	0.0217	245.1	148,452	0.0017	2,765.9	237,675	0.0116
1990	6,014.7	155,835	0.0386	515.5	506,828	0.0010	10,654.6	1,022,035	0.0104
1991		167,148			579,667			1,283,636	
1990/1961(배)	420.61	146.75		184.11	1,279.62		1,238.91	950.14	
평균증가율(%)	22.31	17.46		18.99	25.96		26.79	24.75	

註 : 1) 경상가격 기준.

2) 전국은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제주는 지역총생산자료를 산업별 생산구조 비율을 이용하여 배분(단, 전국 부가가치의 경우 61,66년은 75년 계열자료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주·전국의 비교상의 편의를 위해 구계열은 GDP에서 농림어업, 광공업을, 신계열은 GDP에서 농림어업, 광공업, 수입세를 차감하여 산출).

資料 : 국민계정(韓銀) 각연도, 한국의 국민소득(한은, 1982), 제주경제지표(제주도청, 1991)에서 제작성.

2. 産業構造의 變化推移

가. 生産構造

- 1961~1990년간 GRP의 産業별구성을 통해 産業구조의 變化추이를 살펴보면 (<表 4>참조).
  - 농림어업의 구성비는 61년의 55.7%에서 90년에는 35.0%로 감소하였으나, 90년 현재 전국의 농림어업 비중 9.0%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광공업의 구성비는 제주지역경제에 있어 광공업 입지조건외의 취약함을 반영하여 61년의 10.8%에서 90년에는 3.0%로 감소.
  - 한편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구성비는 도로, 항만, 전기, 용수 등 기반산업의 확충과 함께 제주관광개발에 따라 61년의 33.5%에서 90년에는 62.0%로 높아짐으로써 전국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음.

<表 4> 生産構造 變化推移

(단위 : %)

	농 립 어 업		광 공 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961	55.7	39.1	10.8	15.5	33.5	45.4
1971	49.3	27.2	8.0	22.5	42.7	50.3
1981	34.9	15.6	5.3	31.3	59.8	53.1
1990	35.0	9.0	3.0	29.3	62.0	61.7
1991	-	8.1	-	27.9	-	64.0
1991/1961	0.63	0.21	0.28	1.8	1.85	1.41

註 : 경상가격 부가가치기준(전국은 GDP대비 구성비, 제주는 GRP대비 구성비).

資料 : 국민계정(한은)각연도 및 제주경제지표(제주도청, 1991).

- 한편 제주지역의 産業構造를 전국의 産業構造와 비교한 부가가치기준 입지상계수(Locational Quotient)를 이용해서 살펴보면(<表 5>참조),

2) 입지상계수(Locational Quotient) =  $\frac{V_{ij}/V_i}{V_j/V}$

- V : 전국의 전산업 부가가치
- V<sub>i</sub> : 전국의 i산업 부가가치
- V<sub>j</sub> : j지역의 전산업 부가가치
- V<sub>ij</sub> : j지역의 i산업 부가가치

- 농림어업은 61년부터 同계수값이 1을 상회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61년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81년과 90년에는 1을 상회한 반면
- 광공업의 계수값은 61년부터 1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따라서 제주지역경제가 부가가치기준으로 볼 때 농림어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에 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表 5〉 産業別 濟州地域 입지상계수 (부가가치기준) 推移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1961	1.4246	0.6968	0.7379
1971	1.8125	0.3556	0.8489
1981	2.2372	0.1693	1.1262
1990	3.8889	0.1024	1.0049

나. 就業構造

- 한편 産業別 就業構造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피보면(〈表 6〉참조),
  -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비중은 61년에는 86.5%에 달함으로써 제주지역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7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91년에는 37.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전국의 16.7%에 비하면 2배를 훨씬 웃돌고 있음.
  - 鑛工業의 경우에는 61년의 0.8%에서 91년에는 4.1%로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SOC 및 기타서비스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61년의 12.7%에서 91년에는 58.4%로 증가함으로써 농림어업부문의 이농·탈농인구와 신규 취업자의 대부분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흡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表 6> 産業別 就業構造 變化推移

(단위: 천명, %)

	전체 취업자수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961	140	7,563	86.5	63.0	0.8	8.7	12.7	28.3
1971	159	9,946	81.4	48.2	3.0	14.2	15.6	37.6
1981	187	14,023	71.8	34.2	3.1	21.3	25.1	44.5
1991	243	18,576	37.4	16.7	4.1	26.9	58.4	56.4
1991/1961(배)	1.74	2.46	0.44	0.27	5.12	3.09	4.60	1.99
평균증가율(%)	1.80	2.95						

자료: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취" (통계청, 92), 제주경제지표(제주도청, 91) 및 1991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92).

- 就業構造의 변화를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기준 입지상계수를 통해 살펴보면(<表 7>참조),
  - 농림어업은 61년부터 同계수값이 1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86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왔으나, 附加價值 기준과 달리 최근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들어 農業部門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鑛工業의 경우에는 71년 이후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0.2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7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91년에는 1.04를 기록하였음.
  - 이는 濟州地域經濟가 부가가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자 기준으로도 농림어업과 SOC 및 기타 서비스업에 특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表 7> 産業別 濟州地域 立지상계수 (취업자기준) 推移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1961	1.3603	0.0920	0.4488
1971	1.6888	0.2113	0.4149
1981	2.0994	0.1455	0.5640
1986	2.4661	0.1197	0.7663
1990	2.2951	0.1392	0.9963
1991	2.2395	0.1524	1.0355

- 한편 산업중분류별로 취업자기준 입지상계수를 추정해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 觀光開發 및 觀光産業의 발전에 따라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등 관광연관 산업으로의 就業移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表 8〉 濟州地域 산업중분류별 취업자기준 입지상계수

	1981	1986	1991
농 립 어 업	2.0994	2.4661	2.2395
광 업	0.1111	0.0738	-
제 조 업	0.1520	0.1255	0.154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5640	0.7663	1.0355
〈도소매 음식숙박업〉	0.6201	0.8169	1.0709
(도 매 업)	0.3429	0.4249	-
(소 매 업)	0.6609	0.8273	-
(음식 및 숙박업)	0.6805	1.0055	-
〈운수창고 및 통신업〉	0.7270	0.8405	1.5304
(수 상 운 수)	2.1077	1.2747	-
(항 공 운 수)	0.5198	1.8836	-
(통 신)	0.5556	0.9114	-
〈금융 보험 부동산업〉	0.4497	0.6366	0.8614
(금 융 업)	0.5534	0.7812	-
(보 험 업)	0.5977	0.9530	-
〈기 타 서 비 스 업〉	0.7056	0.8414	1.0662

#### 다. 産業別 1人當 附加價値 生産性 推移

- 한편 제주경제의 산업부문별 국내비교우위를 알아보기 위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經常價格)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表 9〉 참조).
- 농림어업의 경우 71년에서 90년사이에 연평균 21.7%의 성장율을 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중반부터는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90년에는 전국수준의 1.3배에 달하고 있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80년대 중반까지 전국수준을 웃도는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70년대(연평균 증가율 24.5%)에 비해 80년대(연평균증가율 3.5%)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어 90년에는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鑛工業의 경우에는 90년기준 전국수준의 55.9%에 불과하고 제주의 농림어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表 9> 産業別 就業者 1인당 附加價値(추정)의 推移

(단위: 억원)

	농림어업			관광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1971	1.2	1.9	0.6316	5.2	5.5	0.9455	5.3	4.4	1.2045
1976	4.2	6.0	0.7000	5.4	15.0	0.3600	18.3	15.0	1.2200
1981	12.0	15.5	0.7742	42.3	49.7	0.8511	58.9	38.1	1.5459
1986	34.9	29.3	1.1911	61.8	75.9	0.8142	66.4	63.2	1.0506
1990	60.7	47.2	1.2860	57.5	102.9	0.5588	83.3	104.2	0.7994
1991		53.9			116.0			112.5	
1990/1961(배)	50.58	28.37		11.06	21.09		15.72	21.23	
평균증가율(%)	21.67	17.27		12.77	15.62		14.77	15.66	

### 3. 評 價

- 지난 30여년간 農林漁業部門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제주지역경제의 기간산업역할을 수행해 왔음.
  - 附加價値 측면에서 전국에 비해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 유지.
  - 附加價値의 높은 증가와 취업자비중의 감소는 農業部門의 높은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향상을 통해 실현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남.
- 續工業部門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관찰됨.
-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도 부가가치구성이나 취업자구성면에서 전국수준을 상회함으로써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측면에서는 최근들어 전국수준에 못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農林漁業部門에서 서비스部門으로 많은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同부분 부가가치생산의 증가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農業部門이, 그동안 관광개발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성장에 의해 침체되어 왔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道內에서의 상대적 비중은 저하되고 있지만 전국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부가가치 절대규모의 꾸준한 증가는 물론 지표에서 전국의 평균수준을 능가함으로써 오히려 그 상대적 競爭力 및 比較優位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產業部門 附加價值 生産性이 전국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괄목할만한 성장 실현.
- 한편 앞으로 濟州觀光産業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포함하는 SOC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함을 알 수 있음.
- 앞으로 農業部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부문에서 꾸준히 剩餘勞動力을 방출하게 될 경우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부문은 서비스부문 뿐이며, 同부문이 競爭力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構造調整의 쿠션역할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同부문의 生産性向上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 최근 서비스부문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증가템포의 둔화는 우려할만한 한 현상임.

### Ⅲ. 濟州地域經濟의 向後 發展方向

#### 1. 比較優位産業 중심의 成長戰略 追求

- 濟州地域經濟는 농업부문과 SOC 및 서비스부문에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주경제 발전전략도 이 두 產業部門의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
- 이 두 產業部門은 과거 30여년간 전국경제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교우위의 향상을 실현해 왔음.
- 觀光産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부문과 농업부문의 연계개발전략이 바람직.
- 현재의 觀光 및 특용작물 중심의 농업작물구조 개선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바람직.
- 그러나 현재의 濟州地域經濟의 비교우위부문은 국내경제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經濟開放化와 國際化의 진전에 따른 부정적 과급효과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의 比較優位産業인 農業部門 및 서비스部門이 개방화·국제화된 여건하에서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앞으로는 첨단기술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산업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산업분류자체도 모호해질 전망이며, 農業部門 및 서비스部門과 연계되는 製造業部門의 경우는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적인 産業特化政策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음료·식품제조업이나 공예품제조업 등은 각각 農業 및 서비스業과의 연계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함.

## 2. 比較優位産業育成을 위한 金融政策方向의 摸索

- 제주도의 産業構造分析結果에 의하면 농업과 서비스부문이 국내경제여건에 비추어 가장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됨.
- 그러나 제주지역의 金融運用現況을 보면,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일률적 금융운용관행으로 인해 가장 비교우위가 낮은 鑛工業에 대한 金融支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濟州金融構造的 특성에 대해서는 左承喜, 「濟州域内外 金融發展方向의 摸索」, 1992. 9 참조).
- 따라서 앞으로 제주경제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편향적인 中央金融政策에서 탈피하여 제주도수준에서 농업,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金融供給이 가능할 수 있도록 金融政策運用上的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金融運用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보다는 農業, 製造業, 서비스業에 대한 현지어건에 따른 자유로운 金融運用이 바람직.

〈表 10〉 總生産額 對比 貨出金 比率

(단위 :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대 출 금 <sup>1)</sup>	농 립 어 업 (a)	5,182.9	116.8	6,109.1	132.9	7,373.5	174.2	8,447.5	208.7
	광 공 업 (b)	21,820.7	29.7	26,157.3	41.8	31,340.2	55.9	40,220.4	69.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c)	12,967.1	93.8	18,420.8	122.8	20,724.3	142.5	22,574.1	180.0
총 생 산 액 <sup>2)</sup>	농 립 어 업 (A)	13,493.9	493.9	14,457.8	624.3	15,583.5	600.6	16,566.2	749.7
	광 공 업 (B)	42,545.3	55.3	45,463.1	78.2	50,682.8	91.5	59,502.9	116.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C)	68,426.4	626.7	79,871.4	773.3	102,203.5	971.6	127,980.0	1,221.6
비 율	a/A	38.4	23.6	42.3	21.3	47.3	29.0	51.0	27.8
	b/B	51.3	53.7	57.5	53.5	61.8	61.1	67.6	59.1
	c/C	19.0	15.0	23.1	15.9	20.3	14.7	17.6	14.7

註 <sup>1)</sup> 대출금은 매년말 현재 예금은행 대출금으로 분류불능 대출금 제외.

<sup>2)</sup> 전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광공업 및 수입세를 차감하여 계산.

資料 :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각호

1992 제주지역 경제통계연보, 한국은행 제주지점, 1992. 6.

1985~1991년 도내총생산 추계결과, 통계청, 1993. 5.